기술·경영혁신 기업 '한자리에'… 발전 유공자 230점 포상

2024 중소기업 '혁신대전'

우원기술 대표 등 2명 '은탑훈장'
AI·R&D혁신 등 기업전시 펼쳐

오영주 장관 "디지털 경제시대 中企, 선두주자로 성장하게 지원"

'2024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이 14일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고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왼쪽 네번째부터)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광천 메인비즈협회장,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김종호 기보 이사장 등이 오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대한민국 혁신기업들이 기술력과 경영성과를 뽐내는 자리가 울산광역시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는 14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4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개회식을 열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혁신제품을 전시·홍보하고 유공자를 포상했다.

이날 포상에서 우원기술 김태완 대표, 에스제이오토텍 정지원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다.

2000년부터 시작해 25회째를 맞은 기술·경영 혁신대전은 올해엔 '혁신형 기업, AI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탄소중립 ▲글로벌 ▲R&D 혁신 등 4대 중점분야의 기술·경영 혁신과 관련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졌다. 기술·경영혁신 기업이 행사를 함께 한 것은 올해가 두번째다.

개회식에선 기술·경영혁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은탑산업훈장 2점, 동탑산업훈장 1점, 근정포장 1점, 산업포장 3점을 비롯해 대통령표창 20점, 국무총리표창 30점, 장관표창 173점 등 총 230점의 포상이 돌아갔다.

은탑훈장을 받은 김태완 대표는 세계 최초로 '틸팅 Z스태킹(Tilting Zstacking)' 방식의 초고속 전극 적층 기술을 개발해 적층 시간을 단축, 국내 이차전지 정밀산업분야 성장에 기여했다.

정지원 대표는 자동차용 도어래치 액추에이터 하우징, 윈도우 레귤레이터 드럼으로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3년간 총 매출액 1605억원 등의 성과를 올리며 도어무빙시스템 산업 발전에 힘썼다.

이외에도 동탑산업훈장은 이노바이오써지 왕제원 대표가, 근정포장은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가, 산업포장은 금성풍력 정형권 대표와 프라임방재 김회택 대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대한민국 혁신의 선두주자로 활약해 온 분들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면서 "다양한 기술이 어우러져 중소기업들이 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하는 행사는 테마별로 혁신성이 우수한 100여개 기업이 참가해 자사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전시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올해 혁신대전은 AI로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통해 스케일업에 성공한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혁신 노하우 공유에 중점을 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AI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 기업 경영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행사는 글로벌친환경포럼, 과학기술정책포럼, 기술사관 취업 매칭 박람회,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기술·경영 혁신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확대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술·경영 혁신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시대에 선두 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물류산업 2題

한진, 드론이 창고 내 재고 파악 작업자는 스마트 글라스로 상차

'한진 스피닉' 열고 최신 스마트물류 공개
음성 지원 '스마트 글라스' 양손 자유로워

한진은 지난 13일 남서울종합물류센터에서 드론과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 시연회 '한진 스닉픽'을 진행했다. 조현민 사장이 창고 내 상품 재고 파악에 활용하는 드론을 선보이고 있다. /한진

㈜한진이 산업 현장에 적용할 최신 스마트 물류 기술을 공개했다. 한진은 지난 13일 남서울종합물류센터에서 '한진 스닉픽(Hanjin Sneak Peek)'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살짝 엿보다'는 뜻의 스닉픽(Sneak Peek)은 정식 도입 전 제한된 청중에게 기술을 미리 선보이는 자리로, 이번 시연회는 드론과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한진의 미래 물류 기술이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연회에선 드론이 창고 내 상품의 재고를 파악하고 작업자는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해 상품을 피킹, 패킹, 배송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또한 스마트 기기 도입 전후의 프로세스 변화를 비교하는 영상과 LED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 과정을 중계하며 스마트 물류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이번에 공개한 기술의 핵심은 작업 효율성과 정확성의 대폭 향상이다. 드론을 활용한 재고 관리는 기존 수작업에 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고 파악을 가능하게 하며, 재고 조사 주기를 단축시켜 보다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공급자와 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작업자가 창고 내에서 제품을 찾고, 포장하며, 고객에게 배송하는 전 과정에 적용될 스마트 글라스는 물류 작업자가 제품의 운반 과정에서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실시간으로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수월한 작업을 돕는다.

특히 음성 지원 기능을 탑재해 작업자는 별도의 수작업 없이 피킹, 패킹, 상차, 배송 등 물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음성으로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배송 작업 시 주소를 말하면 배송 대상 목록과 수량이 자동으로 글라스에 표시된다.

배송 현황도 스캔만으로 고객에게 자동으로 문자 발송되며, '촬영' 음성 명령으로 사진을 촬영해 고객에서 전송할 수 있어 작업의 연속성과 정확도를 유지하며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운송장을 보안 운송장으로 대체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운송장에서는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으나, 스마트 글라스를 통한 보안 운송장은 바코드 형태로 되어 모든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철저히 보호할 수 있다.

한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스마트 물류 기술은 한진이 꿈꾸는 미래 물류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프로세스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오배송과 추가 배송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운송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美에 대규모 콜드체인 물류센터 CJ대한통운, 북미시장 '정조준'

조지아주에 약 7500평 규모 조성, 운영시작
인근 북동부 내륙항 완공땐 수송범위 확대

CJ대한통운 조지아주 게인스빌 콜드체인 물류센터 전경.

CJ대한통운이 미국에 대규모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콜드체인 시장에서 핵심 물류 파트너로 입지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미국 조지아주 게인스빌에 콜드체인 기능을 갖춘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2만4904㎡(약 7500평) 규모로 조성한 센터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다양하게 온도관리를 할 수 있는 복합물류센터다. 약 90% 공간은 냉장, 냉동 제품을 대상으로 한 콜드체인 물류를, 나머지는 상온 물류를 수행한다.

이 물류센터는 단시간에 온도를 낮추는 급속 냉동 시스템(Blast Freezing System)을 도입해 빠르고 효율적인 냉동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관상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인증 검사실이 센터 내 갖춰져 있다.

물류센터 주변으로 주요 철도 노선인 노퍽서던 철도(Norfolk Southern Railway)와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물류 수행에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게인스빌 인근에 건설 중인 조지아 북동부 내륙항(Northeast Georgia Inland Port)이 완공되면 사바나(Savannah) 항구와 연결되어 수송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게인스빌 지역은 미국 내 냉동 가금류 최대 생산지로 냉동 물류 수요가 매우 높다. 특히 주변 물류센터들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최신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CJ대한통운의 신축 물류센터가 이 지역의 급증하는 물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CJ대한통운은 냉동 가공식품, 가금류, 제과·제빵 고객사를 미리 확보해 물류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근 수요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고객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J대한통운은 북미 물류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5년 3분기 운영을 목표로 캔자스주 뉴센추리에 2만7000㎡ 규모의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엘우드 지역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2026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케빈 콜먼(Kevin Coleman)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최고경영자는 "콜드체인 물류에 특화된 첨단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게인스빌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객사들에게 최적의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영역인 콜드체인 물류 사업을 지속 확대해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